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2006)

13세기 스페인어에 나타난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 연구

조 은 영

<Abstract>

Estudio sobre la posición de sujeto de las construcciones infinitas en el español del siglo XIII

En español, existen tres formas infinitas formadas de infinitivo, gerundio y participio que tienen sujeto independiente del de los verbos principales. Estas construcciones realizan una función semejante a la de la subordinación adverbial, dando lugar a la llamada "construcción absoluta". Tienen sus orígenes en latín y se empleaban con más frecuencia en español medieval. A través de comparar las construcciones infinitas medievales con las de español moderno, observamos distribución diferente de sujeto en estas frases medievales, lo cual nos hace pensar que funcionan de manera diferente en lo que al orden se refiere. Esto se debe al que la construcción absoluta sea un tópico, situándose en la posición delante de la oración principal, y la construcción infinita pospuesta, a su vez, no se considere como un tópico. El que una construcción infinita sea un tópico o no se refleja en los órdenes, así que SV parece sobresaliente en las frases topicales, es decir, en las antepuestas; VS, en las construcciones pospuestas, aunque la restricción de sujeto postverbal era muy extendida ya en el siglo XIII. Por tanto, se supone que el orden SV presenta un orden topicalizado, mientras que el VS es un orden neutral no presionado pragmáticamente. Hay que notar, además, inversión de sujeto en la oración principal cuando la construcción infinita precede a ésta. El orden VS en la

principal se produce regularmente. Este hecho se ve afectado por la existencia de tópico, realizado, en este caso, como construcción infinita.

[Key Words: Construcción Infinita / Construcción Absoluta / Tópico / Estructura Narrativa / Dislocación A La Izquierda / Elementos Satélites]
[주제어: 비시제절 / 절대구문 / 화제 / 서술구조 / 좌측전위 / 위성요소]

Ⅰ. 서론

비시제절(construcciones infinitas)이란 인칭, 수,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동사 형태, 즉 시제와 일치(concordancia)에 관한 문법 자질이 결여된 동사가 고유 주어를 갖고 독립된 명제로서 기능하는 구문을 말한다.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을 구성하는 동사는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로서 주어, 목적어 등의 논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제동사(verbos finitios)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담화 기능적 측면에서 주절에 대한 '상황 배경'(trasfondo circunstancial), 또는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부사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비시제절은 통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내포하는데 중세 스페인어에서 주어 위치가 현대어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후자에서 주어는 동사 뒤에 고정되어 나타나지만 전자에서는 동사 전·후를 중심으로 매우 자유로운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볼 때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당시의 언어 내적 규칙에 의해 파생한 불가피한 귀결로서 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언어로 표현된 모든 현상에는 무질서라는 수식이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상을 해석하는 문법적 시각이 변화한 이유로 '덜 문법적'이라거나 '자유롭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3세기 스페인어로 쓰여진 연대기를 중심으로 비시제절에 나타난 주어 분포를 현대어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통시적으로 나타난 차이점을 두 공시태에 내재한 구조적 원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현대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

일명 '절대 구문'(construcciones absolutas)이라고도 불리는 비시제절은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각각의 고유한 주어를 갖는 구조를 말하는데 현대어에서 주어는 언제나 동사 뒤에 위치한다. 다음은 각각 부정사,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비시제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a. Al **salir** los padres, los niños empezaron a chillar.
b. Al **ponerse** el sol, la sombra crece.

(2) a. **Terminada** la clase, empezó a llover.
b. **Vendidas** las casas, Juan se sintió triste.

(3) a. **Confiando** el pueblo en el presidente, le cedió todo su derecho.
b. **Yendo** Juan a la oficina, una vieja se le acercó.

이 가운데 부정사(infinitivo)로 구성된 구문에서 동사 앞 자리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하며 주어 뿐만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를 포함한 일체의 요소도 올 수 없다. 이에 대해서 Lee, M. K.(1996)는 절대구문의 비시제형 동사는 화제(tópico)를 인가할 수 있는 자질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동사 앞 자리엔 어떤 요소도 올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구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동사 앞 자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4) a. *Al **Juan comprar** una casa ayer,
b. *Al **ayer comprar** Juan una casa,
c. *Al **una casa comprar** Juan ayer, (ibid, 196)

일반적으로 비시제절은 주절과 함께 복합문을 구성하며 부사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현재분사는 주절과 동시성(contemporaneidad)을 갖는 이른바 '부대상황'으로 작용하고 과거분사로 구성된 절대구문은 주절보다 앞선 시간, 즉 과거 시제와 완료상(aspecto perfecto)을 나타낸다. 한편, 부정사 구문은 전치사

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건, 시간, 양보' 등의 의미를 갖는 앞에 부사절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시제절의 위치는 주절을 중심으로 전·후에 위치하며 위치에 상관없이 비시제절의 주어는 후치한다.[1)]

(5) a. Juan murió en Madrid, **estudiando yo** Derecho en París.
b. **Regadas las plantas**, el jardín parecía perfecto.
c. Me quedaré contento, de **cumplir mi hijo** todas las misiones.

이처럼 현대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의 주어를 후치로 정의할 수 있다면 중세 스페인어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2세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Cantar de Mio Çid』는 주어의 전치와 후치를 모두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6) **Ellos partiendo** estas ganançias grandes, nol pueden fazer comer un muesso de pan (PMC, 1031-1032) en estas nuevas **todos se alegrando,** de parte de orient vino un coronado (PMC, 1287)

(7) e **faziendo yo** a él mal, e él a mi grand pro del casamiento non sé sis abra sabor(PMC, 1891) que non fagan esta lid delant **estando yo** (PMC, 3482)[2)]

(6)-(7)에서 밑줄로 표시된 요소들은 현재분사의 고유 주어로서 현재분사를 중심으로 전치, 후치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중세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가'자유롭다', 또는 '전치와 후치를 모두 허용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피상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만 중세 스페인어 고유의 서술구조(estructura narrativa) 차원에서 볼 때 나름대로 규칙

1) Fish(1959)에 의하면, 후치 주어(sujeto pospuesto)의 출현은 비시제절이 언제나 초점(foco), 저자의 용어에 따르면 'información'에 해당하는 주어를 갖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는 이만기(1996)가 제안한 화제적 자질을 부여하지 못하는 비시제절 동사의 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The subject of nominative absolute or of infinitive with preposition is almost always information, although it may also be logical subject of the clause which follows it*"(ibid, 586)

2) 『Poema de Mio Çid』 Julio Rodriguez Puértolas(ed.), Akal, Madrid, 1996.

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할당된 통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주어를 포함한 성분들이 배열되는 현대어의 구조와 달리 중세어 특유의 배열 규칙에 의거해 보면 비시제절에 나타난 어순도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스페인어가 본격적으로 독립 언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기록되기 시작한 13세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시제절 분포와 어순을 살펴 보고자 한다.[3)]

2. 13세기 스페인어에 나타난 비시제절과 주어 위치

스페인어를 비롯한 로망스어에서 비시제절은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스페인어의 과거분사는 라틴어의 과거분사로부터, 현재분사는 라틴어의 전치격 현재분사(gerundio en ablativo)로부터, 부정사는 라틴어의 대격 부정사(*accusativus cum infinitivo*)로부터 유래되었다.[4)] 특히 부정사로 구성된 구문은 라틴어보다 스페인어에 와서 보다 일반화된 구조였으며 현재분사 또한 라틴어 보다는 중세 스페인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5)] 다음은 과거분사, 부정사, 현재분사가 각각 사용된 라틴어 예문들로서 (8)-a, c는 스페인어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8)-b는 부정사 구문의 해체 후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따라서 주동사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8) a. **Urbe capta**, hostes discesserunt "Conquistada la ciudad, los enemigos se retiraron"
b. **Adesse Romanos** nuntiatur "Se anuncia que están allí los romanos"(부정사의 대격 주어)

---

3)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중세어 텍스트는 13세기 알폰소 10세때 작성된 『*Primera Crónica General de España*』 (ed. R. Menéndez Pidal, Gredos, 1977)과 『*Versión Crítica de la Estoria de España*』 (ed. Pelayo a Ordoño II, realizada por Inés Fernández Ordóñez; Madrid; Fundación Menéndez Pidal y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1993)이다.

4) Penny(1991)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과거분사 -ado, -ido는 라틴 제 1, 4변화형인 -ĀRE, -ĪRE의 약변화형 분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제 2, 3변화형 -ĒRE, -ĔRE의 파생형인 강변화 분사(MŌNITU, DĬCTU, MĪSSU)는 대부분 -ido나 -udo 등 약변화형을 채택하였다. 이 -ido와 -udo는 13세기까지 변이형으로 존재하다가 -udo가 -ido로 완전히 편입되기에 이르러 오늘날 완전 소멸한 것이다.

5) Martínez García(1992)

c. non legionibus eorum solum experti sumus, sed **vir unus cum viro congrediendo**
"Somos expertos no solamente en legiones de ellos, pero un hombre reuniéndose con el varón"

이처럼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탈격(ablativo)의 형태로 주동사에 대해서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정사는 고유 주어가 주동사(술어)에 대한 목적격, 즉 대격(acusativo)으로 나타난다. (8)에서 밑줄로 표시된 주어의 위치도 전치와 후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lvira(1994)에 의하면, 비시제형 동사들이 현대적 의미의 절대구문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후 1세기 이후로서, 이것도 매우 제한된 사용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주동사로부터 통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비시제형 동사들이 종속접속사가 풍부하지 못했던 라틴어에서 종속절, 특히 부사절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차츰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초기의 라틴 비시제절은 로망스어에서 진화된 모습을 갖추었고 이 구문에서 주어 위치는 전치와 후치를 동시에 허용한 상태로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틴어를 기원으로 한 비시제절의 모습을 중세 스페인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제시문은 비시제 구문의 주어 위치를 전치와 후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9) a. et **el auiendo** sienpre guerra et enxeco con los franceses, saco su hueste et fueles correr la tierra (VC VII, 20) **Esto librado** alli desta guisa, el rey don Ordonno tornose pora su tierra (PCG 366a:15-18) Et **ellos por entrarla**, llegaron los moros (PCG 487a, 44-45)

(10) **Uiendo el** su grande quebranto et el su desconorte que auien rresçebido de los moros, alçaron por rrey a don Pelayo. (VC I, 2) **Firmada esta pleytesia**, el rey don Sancho fue pagado con ella (PCG 496a, 45-46) **por seer oy la cibdat de Troya** tan grand cuemo era seyendo Ector uiuo, adur la deuies tu querer yr (PCG 42b, 27-30)

통계에 따르면, 과거분사나 부정사에 비해서 현재분사가 비시제절을 구성하

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6] 대부분의 부정사는 전치사 “por, pora, en” 등을 동반한 형태로 부사절 역할을 하며 가끔 전치사 “de”를 동반하여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7]

제시문 (9)-(10)을 통해서 보듯이, 중세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는 전치와 후치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라틴어에서 관찰된 것처럼 동사를 마지막에 배열하는 라틴 어순(SOV)이 비시제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음 표를 보면 중세 스페인어 비시제절의 주어는 문맥적으로 유도된 상황에서 특정 경향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는 비시제절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비시제절이 주절 앞에 위치하면 주어의 전치 경향이 있고, 반대로 비시제절이 주절 뒤에 위치하면 후치 주어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은 주절을 중심으로 비시제절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주어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비시제절+주절	주절+**비시제절**
SV	196 (52.5%)	4 (9.8%)
VS	177 (47.5%)	37 (90.2%)
합계	373 (100%)	41 (100%)

비시제절이 주절 앞에 올 때 비시제절의 주어가 전치할 확률(SV)은 52.5%로서 후치할 확률(47.5%)를 능가하고 있고 반대로 비시제절이 주절 뒤에 오면 주어는 후치할 확률이 90.2%로 압도적이다. 비시제절이 주절 뒤에 오는 복합문을 구성할 때 전자에서 주어 위치는 현대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6) 전체 414개 예문 가운데 현재분사로 구성된 비시제절은 362개, 과거분사는 52개, 부정사는 5개가 발견되었다. 5개의 부정사 구문은 형용사, 명사적 기능을 맡는 경우가 제외된 것이다.

7) 전치사 “de”로 시작되는 부정사 구문은 라틴어 뿐만 아니라 현대 스페인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으로서 16세기 이후 소멸하였다. 이 경우 전치사는 주동사보다 부정사에 의해 결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주어 위치는 전치가 일반적인 가운데 후치도 발견된다: “et si a uos ploguiesse era guisado **de las el veer** (PCG 594a, 7-8) et mas guysado es **de fincar uos assy** (609a, 30-31)”

러므로 비시제절이 주절을 전치할 때, 비시제절의 주어가 전치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J. Elvira(1994)는 현재분사의 고유 주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현상을 13세기 역사 기술(narrativa histórica)의 특징으로 분류하면서 주어가 전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절대구문이 주절 앞에 위치할 것을 들었다. 특히 현재분사와 주동사(verbo principal)의 주어가 동일할 경우 주어가 문두로 탈구되는(dislocado) 경향이 있는데 중세 서술구조(estructura narrativa)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11) Et **el yendo** para alla, **murio** en el camino de su muerte (VC 11, 3)
Abdelmelic, **seyendo** muy loçano por todos estos bienes que le Dios fazie contra todos sus enemigos, **enbio** sus cartas de amenazas et de castigos a Beolgi (VC 23, 81-82)

(11)에서 밑줄로 표시된 "el"은 현재분사 "yendo"와 주동사 "murio"에 공통된 주어로서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일 문장이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비문법적으로 간주된다. 현대어의 관점에서 볼 때, 주어가 주절에 위치한 "Yendo para alla, él murio en el camino..."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Bello(1847:1131)은 고유 주어를 가진 현재분사가 종속 부사절에 준하는 역할을 갖지만 주어가 문두에 오는 비시제절은 고어적 표현일 뿐 현대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11)과 같은 구조는 과거분사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과거분사와 주동사의 공통된 주어로 문두에 위치한 주어를 '탈구된 주어'(sujeto desplazado)라고 명명하였다. 과거분사로 구성된 비시제절에서 탈구된 주어의 존재는 다음 예에서도 확인된다.

(12) E **el mucho esforçado** por la uision, **començó** de esforçar los suyos pora la batalla (PCG, 291b:40-42) et **ellos abenidos** ya, **arrancaron** luego las tiendas et fueron se su carrera (PCG 741a, 23-25)

주어 "el"은 과거분사 "esforçado"와 주절 동사 "començó"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주어가 비시제절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탈구'되었다는 Bello의 가정은 다음 전치사를 동반한 부정사구문을 통해서 검증된다.

(13) Et **ellos por ayntarse** unos a otros et ferirse (PCG, 437b, 45) Et **ellos por entrarla** (PCG 487a, 44)

부정사로 이루어진 비시제절에서 관찰되는 전치 주어는 (13)처럼 탈구된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por ellos ayntarse"처럼 전치사와 부정사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3)에 제시된 주어는 주절 뿐만 아니라 비시제절로부터 통사적으로 독립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Bellok 사용한 'sujeto desplazado'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하겠다.[8)]

한편, 문두로 탈구된 주어, 또는 전위된 주어는 비시제절 뿐만 아니라 관계절, 동격절을 포함한 기타 부차적 요소들이 주절 앞에 위치하여 주절과의 거리감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절에 대해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적' 요소(elementos satélites)들을 문두에 연속적으로 누적시키는 것은 13세기 역사기술 방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는데, 주절 앞에 누적된 여러 개의 절의 존재는 화자로 하여금 주절에 대한 문두 주어의 역할을 잊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주어는 주절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거나 대명사로 복사되기도 한다.

(14) e **los godos que solien uerter la sangre de los otros**, perdieron **ellos** alli la suya (VC 28, 31-33) Mas **el noble rey don Alffonsso, judgando** por guisado de dar omne a las uezes logar a la sanna que uiene, puso **el** por ende a tiempo tregua con el rey de los alaraues (PCG 682a, 19-22)

문두에 위치한 비시세절과 주절의 공통 주어가 주절에서 반복되는 현상은 표준 현대어에서는 비문법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통시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중세 통사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사용된 『Primera Crónica General』이나 『Versión Crítica』는 13세기 알폰소 10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연대기(*chronicles*)로서 식자계급을 대상으

8) 탈구된 형태의 주어는 시제형 종속절 앞에서도 등장한다: "**Muça quando llego ante Vlit, ffue** muy mal rresçebido (VC I, 30) Et **el rrey Pelayo quando esto uio, loo** mucho el poder de Dios (VC III, 70)".

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4)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의 규칙적인 등장을 방치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14)와 같은 파격구문은 13세기 당시의 규범언어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4)와 같은 비문법적인 구조를 양산해낸 13세기 특유의 규칙은 무엇인가? 제시된 13세기 복합문들을 통하여 관찰되는 일차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종속절(비시제절이나 시제절을 포함)이나 기타 위성적 요소들이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문두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주절이 온다. 종속절의 주어는 종속절 영역 밖, 즉 절대적 문두 자리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주절은 이야기의 주된 플롯을 구성하는 반면, 주절 앞에 위치한 종속절은 주절에 대해서 배경정보를 나르면서 동시에 앞 문장이나 앞 문맥과 관계한다.[9] 이때 종속절의 주어가 절대적 문두 자리에 오는 것은 그것이 주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화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 예문은 문장 구성성분이 화제를 문두에 위치시킨 다음, 배경정보를 나르는 종속절, 다음에 메시지의 핵에 해당하는 주절 순서로 배열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 Mas **vn alto omne** que auie nonbre Tendio, de consuno con los otros altos omnes que quisieron ser leales vasallos al rrey, **sacaron**le luego del monesterio, et **entregaron**le el señorio del rreyno (VC XLIX, 4-6)

(15)에서 “vn alto omne”는 관계대명사절 “que...”이하에서 주어 역할을 하지만 주동사 “sacaron”과 “entregaron”에 대해서는 간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는 동사 뒤에 위치한 여격 대명사 “le”의 존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 스페인어에 익숙한 독자에게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vn alto omne” 앞에 여격을 표시하는 전치사 “a”가 와야 한다. 즉, 문두에 화제로 나타난 요소는 주동사와의 문법적 관계를 명시화할 장치를 요구한다. 반면 중세 스페인어는 (15)에서 보듯이 문두 요소와 주동사 사이의 문법적 관계보다 화용적 고려를 우선하는 구조를 갖는다. 일단 말하고자 하는 대상 “vn alto

9) Hopper & Thompson(1984)은 주절을 ‘전경’(foreground), 종속절을 ‘배경’(background)으로 명명하면서, 이야기의 뼈대나 중심 사건이 연속된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전경과 중심 사건을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장면 설정(scene-setting state) 기능을 갖는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omne"를 격 부여없이 발화한 다음, 그에 대한 통사적 고려는 주동사 발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sacaron***le***, entregaron***le***".[10] 이처럼 주동사에 의해 격 부여(*case assignment*)를 받지 않은 원형 상태로 나타난 요소를 '탈격 화제'(*zero case topic*)라 부르는데 "내가 지금 A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A를 당신의 의식 속에서 활성화시켜라"는 화자의 명령어인 셈이다. 그러므로 A의 형태가 문법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든 아니든 간에 A는 정보적 지시체로서 화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시제절 주어의 전치화 현상도 이 '탈격 화제' 구문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시제절이 유독 주절 앞에 위치할 때만 주어의 전치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문장을 화제와 논평이라는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배치하려는 중세 산문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진 일체의 언어 행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담화의 출발점으로 놓은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인지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할 때, 화제적 요소에 의해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비시제절 내부에 있는 주어를 문두에 둔 다음, 배경적 정보를 가진 비시제절을 주절 앞에 배치시키는 것은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을 반영한 결과로서 문장 구조가 구성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현대어와 구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연대기에서, 사건의 행위 참여자(*participants*)인 화제를 제시한 다음,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부사구(절)나 기타 배경적 정보를 가진 위성 요소를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중심 사건에 해당하는 주절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문에서 가장 경제적인 부호화(*encoding*) 방법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각종 종속절을 포함한 위성 요소들이 거의 규칙적으로 주절 앞에 누적되어 쌓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

(16) a. Mas los otros moros de España
1. auiendo sabor de ayudar a Belgi et a los suyos,
2. quando supieron que Abdelmelic se guisaua para yr uedar el paso a los de Belgi,
allegaronse todos en vno para yr correr la tierra de

10) "le"는 3인칭 여격대명사이다.

Abdelmelic.(VC XXIII, 59-60)

b. Otro rrey de moros que en Espanna auie,
   1. pero que non pone aqui el nonbre de la estoria,
   2. quando supo que Carlos tenie çercado a Athiman rrey de Cordoua,
      allego muy gran hueste de moros (VC XIII, 11-13)[11]

(16)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절이나 그에 상응하는 비시제절은 배경부(*background*), 즉 주절 앞에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적되고 있으며 주절은 주요 플롯을 이끌어가는 전경(*foreground*)으로서 동사 "allegaronse, allego"로 시작된다. 밑줄로 표시된 비시제절과 부사절의 주어 "los otros moros..."와 "otro rrey..."는 문두에 위치함으로써 화제 변환(*topic shift*)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어에서 좌측전위(*left-dislocation*)가 맡는 역할에 대응한다.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제를 먼저 제시하고 배경절을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중세 산문의 전형적 기술 방법이었지만, 반대로 배경절을 구성하는 요소가 주절 뒤에 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앞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복합문을 구성하는 비시제절이 전치하는 비율은 약 90%에 이르는 반면, 후치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으로도 증명된다. 비시제절이 주절 앞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배경정보를 나르는 부가적 요소(*adjuncts*)의 화제성(*topicality*)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화제성이란 화제로 나타나는 명사구와 공유하는 부사구, 부사절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화제 명사구와 화제 부사구가 담화기능적, 의미적, 형태적으로 공유하는 점을 총칭하여 표현한다.

---

11) J. Elvira(1994)는 이러한 서술 구조를 '*phrase narrative*'로 명명하면서 라틴어의 역사 기술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라틴어 문장에서도 화제의 도입, 배경정보, 주절의 순서로 배열된 모습이 확인된다: "Ligures, 1. postquam senserunt..... legionem ab Ti. Claudio Pisis dimissam, 2. soluti metu 3. clam exercitu indicto 4. per transuersos limites superatis montibus, 5. in campos degressi 6. agrum Mutinensem populati, ***repentino impetu coloniam ceperunt***.".

3. 비시제절의 위치와 화제성(topicality)

화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순, 즉 문두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띤다. 문두성이란 심리적 주어나 화자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대상, 혹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발점이 먼저 발화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언어로 표현할 때 문두에 위치시키는 일종의 '도상성'(*iconicity*)과 관련있다. 그러므로 모든 화제인 요소는 문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제화(topicalización)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화제가 일반적으로 '논평의 대상·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명사구의 고유자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후속발화에 대한 장면설정(*scene-setting*)을 제공하는 부사구나 종속절도 화제성(*topicality*)을 담지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전치 부사절(oración adverbial antepuesta)은 주절의 정보 영역을 자신에 제공하는 시간·공간의 영역 안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절은 부사절이 제공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해야만 참인 구조를 갖는다. 이를테면 화용적 '대하여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화제로서 문두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Thompson & Longacre (1985)과 Ramsay(1987)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치 부사절과 후치 부사절(*preposed vs. postposed adverbial clauses*) 사이의 서로 다른 담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전치 부사절은 새로운 담화분절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전 담화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후치 부사절은 주절 정보를 수정하거나 첨가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전치 부사절이 선행 담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명사구가 문장 앞에서 화제로 기능하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거나 개괄(*recapitulate*)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과는 반대로 후치 부사절은 주절과만 관계한다. 전치 부사절이 주절의 시·공간적, 조건적 경계를 배열하면서 전체 서술문의 통합적 부분을 이루지만 후치 부사절은 주절의 의미 정보를 확대하기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다음에 제시된 복합문을 살펴 보면,

(17) a. Cuando murió su esposa, él murió.
b. Él murió cuando murió su esposa.

(17)-a의 전치 부사절은 주절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원인'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부인이 죽었다"는 내용이 이전 담화에서 이미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7)-b의 후치 부사절은 주절에 대해 '시간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그가 죽은 것은 바로 부인이 사망했을 때'라는 초점적 의미가 강하다.[12] 이처럼 주절을 중심으로 전·후에 위치한 부사절의 기능적 차이는 Bolinger(1954-55)는 다음 발언으로 이어진다: "*If some element(preposed adverbial clause) initially appears, it becomes the setting of a wide-area situation and thus indicates presupposition against succeeding proposition. On the contrary, if some element appears last, it indicates only the constrastiveness in a narrow sense*".[13]

전치/후치에 따른 부사절(또는 비시제절)의 담화기능상 차이는 형태적, 통사적 방식으로도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중세 스페인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표 1>에 의하면 비시제절이 전치할 때와 후치할 때 어순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비시제절이 주절 뒤에 올 때 비시제절 어순은 동사-주어, 즉, VS로서 후치 주어가 나타나는 비율(90.2%)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18) E fue este consilio fecho ochubre mediado, **seyendo don Eugenio arçobispo de Toledo** (PCG 279a, 22-24) et reynaua en su lugar el rey don Ramiro, **cuedando ellos** que el, como serie en su noueza, que les aurie miedo (PCG 359b, 30-33) Et dalli uiniemos a Baesça, et fallamosla yerma, **foydos todos los moros ende** (PCG 704b, 29-31)

비시제절이 주절 뒤에 위치하는 (18)은 현대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한편 전치 비시제절처럼 주어의 전치화를 요구하는 특정한 환경에서도 후치 주어의 비율이 47.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중세에서 이미 현대어와 같은 VS 어순으로 고착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비시제절에 나타난 전치주어는 문두

12) Haiman(1978)은 좌측으로 전위된 화제 명사구가 전치 부사절과 형태, 통사, 의미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13) 김한상(1997)은 좌측전위구문과 우측전위구문을 비교한 다음, 좌측으로 전위된 요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제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이 갖는 화제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4] 다시 말하면,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는 13세기에 이미 현대어와 같은 후치화로 정착되었지만 문두 위치가 확보되면 화제성과 결부되어 담화화용론적 원칙이 우선시된다. 이에 따라 비시제절의 주어가 심리적 주어, 즉 화제로서 문장의 첫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전치 비시제절이 갖는 화제성은 중세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먼저 좌측전위구문을 들 수 있다. 다음 (19)는 화제 명사구처럼 비시제절도 좌측으로 전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 a. Al conde aduzienle bien.
b. Andados XI annos del regnado daquel rey don Vermudo, este anno ueno Almançor con su hueste mui grand (PCG 448b:38-42)

(19)-a는 명사구 "al conde"가 화제가 되어 문두로 전위되면서 문내에 대용사(anáfora) "le"에 의해 복사(copiar)되고 있는 전형적인 좌측전위구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로 구성된 비시제절도 문두에 위치할 때 주절에서 비시제절을 복사하는 대용사적 요소 "este anno"가 존재한다. 부사에 대응하는 대용사 체계는 원래 스페인어에 부재하기 때문에 (19)-a처럼 화제 명사구와 대용사 사이의 대응관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시제절을 포함한 부사구・절에 대응하는 대용사적 요소의 존재는 잉여적이라 할 수 있다.[15] 좌측전위구조에서 문두 화제가 대용사에 의해 반복되는 것은 주동사에 대한 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통사적 장치이기도 하다.

다음은 접속사 "que"를 삽입함으로써 화제를 문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현상으로서 중세 스페인어에서만 관찰된다.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비시제절도 "que"의 삽입으로 주절과 분리될 수 있다.

(20) a. et esto que lo uiron todos (PCG 284a, 29)
b. ell estando alli que murio aquel rey Yuçaf (VC XXIII, 19)

---

14) Elvira(1994)에 의하면 Versión Crítica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총 52개의 비시제절 가운데 43개(82.7%)가 후치주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비시제절처럼 별도의 대용사 체계를 갖지 못한 요소가 화제가 될 때, 문내에서 pro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문외 요소(*extrasentential element*)로 간주되는 전치 주어가 pro와 대응되는 현상과 동일하다: Juan, (pro) quiere dormir un rato.

한편, 주절 뒤에 위치한 비시제절은 (19)-(20)에서 관찰되는 방법으로 주절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17)에서 보듯이 전치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콤마(,)가 존재하는 것과는 반대로 후치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는 콤마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다.[16]

이처럼 비시제절은 주절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수행하는 담화기능적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화제 명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듯이 비시제절도 문두, 즉 주절 앞에 위치하여 장면설정(*scene-setting*)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전 담화와 후속 주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적 역할도 한다. 이 역할은 문두에 위치한 비시제절이 담화 응집성(*discourse coherence*)에 관여한다는 의미로서 비시제절의 구정보(información antigua), 전제성(*presupposition*), 즉 화제적 속성에서 비롯된다.[17]

4. 주절 주어의 위치

화제로서 비시제절의 존재는 뒤따르는 주절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비시제절이 전치할 때와 후치할 때 주절의 어순을 정리한 것이다.

---

16) Fontana(1993)는 접속사 "que"의 삽입에 대해서 '보문소의 이중 배치'(*double complement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대투사 CP가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The sentences with CP recursion are dismissed as errors, laziness, or sub-standard varieties by lay people and grammarians prone to prescriptivist views. However, as we noted above, the use of more than one overt complementizer in these syntactic environments in Old Spanish appears to be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ibid, 164-165).

17) Thompson & Longacre(1985)의 분류에 의하면 비시제절의 접속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구분된다: ① '꼬리-머리' 연결(*tail-head linkage*) ② '요약-머리' 연결(*summary-head linkage*). 이 가운데 '꼬리-머리' 연결은 이전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음 단락을 시작하는 부사절이나 비시제절에서 후향지시(*back-reference*)되는 관계를 말하며, '요약-머리' 연결은 뒷 단락의 첫 문장인 비시제절이 앞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관계를 말한다.

<표 2>

	비시제절+**주절**	**주절**+비시제절
SV	46 (13%)	15 (55.5%)
VS	308 (87%)	12 (44.4%)
합계	354 (100%)	27 (100%)

비시제절이 후치할 때 주절의 SV, VS 비율은 55.5%와 44.4%로 전치주어가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비시제절이 전치할 때는 VS가 8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절의 VS, 즉 후치주어는 화제로서 비시제절의 존재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치 동사 앞에 목적어가 등장할 때 주어가 동사 뒤로 도치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Derecho** auremos nos dellos. /**Cinco razones** ponen los sabios. /Pues que **esto** ouo acordado.

(22) Et ellos por ayuntarse unos a otros et ferirse, **dixo Gonçalo Gonçalez** a Roy Blasquez su tio (PCG 437b-438a, 45-1) E el pleyto puesto et firmado entrellos, **mando** luego **Julio Cesar** dexar las bastidas (PCG 76b, 17-19)

주절 앞에 위치한 비시제절은 (21)에 나타난 문두 목적어처럼 주어를 동사 뒤로 후치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문장 성분들이 앞뒤로 이동하는 중심에 동사가 있다는 것은 동사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자리는 동사를 위해서, 첫 번째 자리는 화제를 위한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시제절이 동사 앞에 위치할 때 주어가 동사 뒤로 나타나는 것은 화제와 동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통사적 안배에 따른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다.

(21)과 (22)의 유일한 차이점은 문두 화제가 동사의 서술 범위 내에 있는 논항(argumento; 목적어)인 것과 반대로 주동사와는 무관한 비논항적 요소(elemento no argumental: 비시제절), 즉 부가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중세 스페인어(최소한 13세기)에서 논항과 비논항의 구분없이 주어의 위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은 (21)-(22)를 통하여 알아본 바와 같다. 예를 들면 “La estoria de España, nuestro sabio la contara”에서처럼 목적어가 유표적 화제의 자리에 위치할 때 주어 “nuestro sabio”가 동사 “contara” 앞에 그대로 있다면 ‘동사의 두 번째 위치’가 위반되었기에 전형적인 중세 구조라 할 수 없다. 이는 “La estoria de España contara nuestro sabio”처럼 논항 “la estoria de España”가 주어를 후치시키는 통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논항 “la estoria de España” 또한 주어를 후치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 estoria de España, la contara nuestro sabio”.

이처럼 논항, 비논항적 요소를 가리지 않고 문두 화제성을 충족한 모든 요소가 주어의 도치를 유도하는 현상은 현대 스페인어에서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문장 밖으로 전위된 화제, 즉 비논항 화제는 주절 주어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가령, Fernández Soriano(1993)의 연구에 따르면 마드리드 화자가 좌측전위구문에서 주어 후치 가능성은 전치하는 비율과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Morales de Walters(1982)가 조사한 현대 푸에르토리코에서 <부사절+주절> 순서로 구성된 복합문의 경우 주절 주어가 동사 전후로 나타날 확률은 50% 대 50%로서 <표 2>에 나타난 87%와는 대비를 이룬다.[18]

반면, <표 2>를 통해서 주절 뒤에 위치한 비시제절이 주절 주어의 위치와 무관하다는 사실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는 주동사에 대한 비시제절의 역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절 뒤에 오는 비시제절은 더 이상 화제로 기능하지 않고 주절이 나르는 정보의 한 구성 요소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시제절은 주절 뒤에서 시・공간이나 조건, 원인 등의 배경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화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절이 제공하는 정보의 핵심에 대한 수정이나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화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요소는 주절 주어의 위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Morales de Walters(1982)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조사한 결과 복합문과 좌측전위 구문에서 주어가 도치할 확률은 51% 대 49%로서 전치하는 확률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카리브 스페인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시제절의 주어는 현대어에서 반드시 후치되어 나타나는 반면 중세어에서는 비시제절이 문두성을 확보하면 전치, 후치,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났다. 현대 스페인어 비시제절에서 전치 주어를 용납하지 않는 현상은 Fish(1959)에 의해 비시제형 동사의 의미상 주어의 신정보, 초점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었고, Lee, M. K.(1996)에 의해 화제를 허가하지 못하는 비시제형 동사의 자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23)에서 밑줄로 표시된 주어는 비시제절 밖에 존재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23) a. Et ellos [por entrarla], llegaron los moros.
b. Esto [fecho alli], passaron a tierra de Africa.
c. Ellos [estando assi fablando] llego el dragon.

특히 (23)-a에 나타난 <주어+전치사+부정형 동사> 어순은 Fish와 Lee, M. K.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형식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례도 얼마든지 관찰되고 있다.

(24) a. E [pora estas animalias brauas tener et guardar] (PCG 57a, 13)
b. [en uos quexar mucho et llorar] non fazedes (507b, 26)

(24)-a는 비시제절 내부에 있는 목적어가, (24)-b는 주어가 각각 동사 앞, 즉 화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단 중세어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Suñer(1986)과 Morales de Walters(1988)에 의하면 푸에르토리코 등지의 카리브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부정사로 구성된 비시제절에서 전치주어를 허용한다고 한다.

(25) a. [Para el gobernador tomar eso en consideración] debe ser presentado por escrito.
b. Pasó toda la tarde [sin Daniel volverse a su casa].
c. Allá en Lima se construye para la gente disfrutar adentro de la casa.[19)]

Suñer는 카리브 스페인어에서 전치 주어의 출현의 원인을 '언어접촉' 즉,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깝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to 부정사는 고유 주어를 부정사 바로 앞에 위치시키는데 이것이 스페인어 부정사 구문에 <주어+동사> 어순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26) a. I bought Bill a book [to read].
b. I want John [to study hard].
c. It is illegal for John [to leave].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접속법(*subjunctive*) 대신에 부정사를 이용한 단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종속절 주어가 부정사 앞에 위치한 주어로 대체되는 것도 영어와의 접촉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된다.

(27) a. Cuando me empezaron a dar trabajo [para yo hacer maquinilla].
b. Yo no me acuerdo [de yo ser mala].[20]

(27)-a는 표준 스페인어에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되고 대신, 접속법을 사용하여 "para que yo pueda hacer maquinilla", (27)-b는 "de que yo era mala"라는 종속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부정사 사용은 접속법과 경쟁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21]

이처럼 카리브 연안의 스페인어는 '언어 접촉'에 의해 전치주어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표준 스페인어와 구분되는 동시에 중세 스페인어와도 차별되는 면모를 갖고 있다. 중세 스페인어는 비시제절이 주절 앞에 위치할 때만 전치 주어를 갖고 반대로 주절 뒤에 올 때는 현대어와 동일한 후치 주어를 갖는 반면에, 카리브 스페인어는 비시제절의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전치 주어가 나타나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공시적 국면에서 바라본 세 언어(현대 스페인어, 중세 스페인어, 카리브 스

19) Suñer(1986, 194)
20) Morales de Walters(1988, 86)
21) 부정사 뿐만 아니라 전치 주어를 갖는 독립분사구문도 중세 스페인어의 분사구문과 유사성을 드러낸다: "It being fine, we set out on a picnic", "We will start tomorrow, weather permitting".

페인어)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비시제절에 일어난 어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카리브 스페인어처럼 단순히 언어 접촉에 의한 외적인 변화가 비시제절에서 어순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중세와 현대 스페인어에서 감지된 통시적 차이점은 각 공시태를 구성하는 내적 메커니즘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그 변화는 반드시 동일 언어의 통시적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중세 스페인어에서 비시제절의 주어 분포가 주절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면 이것은 비시제절 자체의 담화기능론적 차이가 어순의 차이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와 논항 사이의 문법적 관계가 화용적 관계를 완전히 압도해버리자 비시제절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후치 주어 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주절 앞에 위치하는 비시제절은 배경정보를 나르는 화제적 요소로서 주어의 전치화를 선호하는데 '심리적 주어'를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향에 따라 주어가 문두에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주절 뒤로 후치한 비시제절은 화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위치도 화용적 고려와는 상관없이 후치하였던 것이다.[22] 이렇게 볼 때 13세기에 비시제절 어순은 이미 오늘날과 같은 <동사+주어>로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Ⅲ. 맺음말

13세기 스페인어를 통해서 살펴본 비시제절은 주어가 동사 앞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어와 구분된다. 후자에서 주어는 반드시 동사형 뒤에 나타나는 점과 달리, 13세기 비시제절에서 주어는 동사 전·후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무질서가 아닌 내적인 규칙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시제절과 주절의 상대적 위치가 전자의 주어 분포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주절 앞에 위치하는 비시제절은 전형적인 화제로서 기능하며 이전 문맥과 후속 주절을 이어주는 연결사로서 담화 응집적 역할을 수행한다. 담화 응집성은 이전 문맥에서 언급된 지시체와 조응하는 구정보, 즉 화제 명사구가 주로 담당하며, 비시제절 주어가 전치되는 현상도 이

22) Hopper(1979)는 배경 정보를 나르는 종속절에서 SV 어순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시제절과 같은 부사적 요소가 전형적 화제 명사구와 동일하게 정의될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을 화제 표시자 “que”의 삽입이나 좌측전위 구조처럼 대용사에 의해 복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를 들어 살펴 보았다.

한편, 주절 뒤에 위치한 비시제절에서 주어 분포가 현대어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주절에 대한 담화상 기능이 전형적 화제로서의 전치 비시제절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세 스페인어 비시제절의 주어는 절이 담당하는 화용적 역할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속되는 주절의 정보를 한정하고, 상황을 설정해 주면서 동시에 이전 문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치 비시제절은 자신의 화제성을 주어를 전치시킴으로써 극대화하는 반면, 내용상 ‘배경’ 정보를 나르는 것은 동일하나 전후 문맥과의 연관없이 단순히 주절의 상황을 부가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후치 비시제절은 주어를 동사 뒤로 위치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3세기에 비시제절의 주어는 현대어와 같은 후치로 이미 문법화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화용적 요구에 따라 화제성이 부각되는 위치에서만 주어의 전치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치 비시제절의 화제적 자질은 자신 뿐만 아니라 후속 주절에도 영향을 주어서 주절에서 주어 도치를 유발하였다. 이는 화제, 즉 비시제절이 문두에 존재할 경우 동사를 두 번째 자리에 고정시키고자 주어를 동사 뒤로 후치시키는 이 시대 특유의 통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동사-2위치’ 언어의 전형을 중세 스페인어가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한상(1997) 「Posición del tópico en la estructura oracional del español」, 어학연구, Vol.33, No.1, pp.177-203.

Bello, A.(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de Feo. Abad, Barcelona: Edaf, 1982.

Bolinger(1954-55) “Meaningful word order in Spanish”,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érica*, LXVII, pp.1117-1144.

Elvira, J.(1994) “La función cohesiva de la posición inicial de frase en la

prosa alfonsí", *Cahiers de linguistique hispanique médiévale*, pp.18-19, pp.243-278.

Fernández S, O.(1993) "Sobre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Dicenda: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XI, pp.113-152.

Fish, G. T.(1959) "The position of subject and object in Spanish prose", *Hispania*, XLII, pp.582-590.

Fontana, J. M.(1993) *Phrase structure and the syntax of clitics in the history of Span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iman, J.(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LIV, pp.564-589.

Hopper, P. J.(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Syntax and semantics 12: discourse and syntax*, T. Givon(ed.), pp.213-241, New York: Academic Press.

Hopper, P. J. & Thompson, S. A.(1984)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LX, pp.703-752.

Lee, M. K.(1996) *La distribución de los sujetos y objetos directos del español: El caso abstracto en el programa minimis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Autónoma.

Martínez García, H.(1992) "Algunas construcciones de infinitivo no-subsistentes en el castellano actual", *Actas del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 Ariza & R. Cano(eds.), pp.631-641, Madrid: Pabellón de España.

Morales de Walters, A.(1982) "La posición de sujeto en el español de Puerto Rico a la luz de la clase semántica verbal. La oposición Tema-Rema y el Tópico oracional",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IV/1, pp.23-38.

_____ (1988) "Infinitivo con sujeto expreso en el español de Puerto Rico", *Studies in Caribbean Spanish dialectology*, R. M. Hammond & M. C. Resnick(eds.), pp.85-96,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enny, R.(1991) *A History of the Spanish Language*, Cambridge.

Ramsay, V.(1987)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preposed and postposed "if" and "when" clauses in written discourse",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R. S. Tomlin(ed.), pp.383-408, Amsterdam: Benjamins.

Suñer, M.(1986) "Lexical subjects if infinitives in Caribbean Spanish",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24, O. Jaeggli & C. Silva-Corvalán(eds.), pp.189-203, Dordrecht: Foris.

Thompson, S. A. & Longacre, R. E.(1985) "Adverbial clause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 S. Timothy(ed.), pp.171-2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일자 : 200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조은영
서울대학교 스페인어학과
E-mail : volare@dreamwiz.com